
우리나라 ‘여우’ 이야기

정 철 윤 (국립공원관리공단)

∴ 여우의 특징

여우는 개과에 속하는 동물로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아시아, 유럽 등 전세계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동물이다. 몸의 길이는 50~90cm 가량이고, 몸무게는 5~10kg이다. 여우는 개와 비슷한 형태지만, 몇 가지 특징적인 부분이 있다. 주둥이는 개보다 길고 뾰족하며, 몸의 색깔은 적갈색이고, 귀의 뒷면과 4개의 발등 부분이 검은색인 것이 특징이다. 수명은 약 6년에서 10년이지만, 야생 상태에서는 다른 동물과의 경쟁이나 질병 등으로 인해서 5년 이상 사는 여우는 드문 편이다.

여우는 주로 작은 쥐를 잡아먹고 살지만, 토끼, 고라니 또는 노루의 사체, 곤충, 새의 알 등을 먹는 잡식성으로 특히, 산림 생태계에서 설치류의 개체수를 조절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1960~70년대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어디에서나 흔하게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멸종위기 1급으로 지정되어 있다.

∴ 여우는 왜 사라졌을까?

지금으로부터 3, 40십년 전만 하더라도 우리는 주변의 산과 들에서 여우를



《우리나라 토종 여우의 형태》

쉽게 볼 수 있었다. 그리고 한때는 여우 목도리가 부의 상징으로 통하는 시절도 있었다. 우리 주변의 할아버지 말씀을 들어보면 예전에는 집 주변 야산에서 여우를 쉽게 만날 수 있었으며, 밤이면 산속에서 귀신으로 둔갑하여 사람을 흘렀다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자주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은 우리나라에서 여우를 볼 수가 없게 되었다.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여우를 멸종위기 야생동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복원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여우(Red fox)의 서식 분포도 [IUCN, 2004]》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렇게 무서운 동물인 여우가 지금은 왜 사라졌을까?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의 중국이나 일본 등에서는 아직도 여우를 볼 수 있는데, 왜 우리나라에서만 사라졌을까? 우리나라에서 여우가 사라진 이유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1960년대 이후 전국적으로 이루어진 쥐잡기 운동이 그 원인이다. 여우는 공포스러운 이미지와는 달리 작은 쥐를 잡아먹고 살아간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전국민이 굶주리고 어려운 시기에 쥐라는 동물이 곡식창고에 피해를 주기 시작했다. 당시에는 쥐가 여우의 먹잇감이 되고, 쥐가 없으면 여우도 사라진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 그리고 인지한다고 하더라도 당장 눈앞의 쥐를 없애는 일이 더 시급했다. 그래서 그때부터 마을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쥐를 잡기도 했고, 나라에서는 쥐약을 무료로 나눠주면서 쥐를 잡도록 독려했다. 그 결과, 여우의 먹이가 되는 쥐는 줄어들었고, 더 안타깝게도 쥐약을 먹고 죽은 쥐를 다시 여우가 먹음으로써 여우까지 죽는 일이 벌어졌다.

여우가 사라진 두 번째 이유는 사람들의 욕심에서 비롯되었다. 지금이야 그렇지 않지만 한때는 여우 목도리가 부의 상징이자,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던 때가 있었다. 산에서 살아가는 야생동물을 불법으로 잡는 일은 예전이나 지금이나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서도 비슷

한 일은 많이 일어난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 많은 여우를 무분별하게 잡아버렸다. 이렇게 잡은 여우는 목도리를 만드는데 이용되었고, 모피를 만들어서 팔고 또는 집안에 장식용으로 전시하는데 이용되었다. 우리가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은 여우를 잡지만 않았어도 지금처럼 우리나라에서 여우가 완전히 사라지는 않았을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여우들이 살아갈 공간이 사라졌기 때문이다. 여우는 다른 동물들처럼 가족끼리 일정한 영역을 서식지로 이용한다. 그리고 새끼들이 태어나면 새로운 영역을 찾아서 이동한 후 그곳에서 다시 가족을 꾸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성장과 산업화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많은 면적의 산림이 훼손되고 사라지는 댓가를 치렀다. 여우 한 마리가 살기 위해서는 작은 산 한 개만 있으면 된다. 그러나 더 많은 여우가 살기 위해서는 늘어나는 여우만큼 더 큰 서식공간과 먹잇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더 큰 서식지를 주지는 못할망정 그나마 있던 여우들의 서식지마저 빼앗아 버렸으니, 지금의 우리들이 여우를 볼 수 없는 것은 안타깝지만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인지도 모른다.



이 이미지 출처: <http://kr.fun.yahoo.com/4685/n>

《쥐잡기 운동》



《여우 모피》



《서식지 파괴》

∴ 여우는 정말 교활한 동물인가?

여우는 불여우, 구미호 등 무섭고 나쁜 이미지로 불리는 경우가 많다. 심지어 어린이 동화책에서도 소의 간을 빼먹는 무서운 여자아이로 표현되는가 하면, 교활하고 못된 동물로 표현되기도 한다. 여우는 왜 이처럼 나쁜 동물로 남아있을까? 그리고 여우가 정말 교활한 동물일까?

여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아주 약한 동물이다. 사람은 커녕 자

기랑 비슷하거나 더 큰 동물을 공격할 힘도 없고, 기껏 사냥해봐야 작은 쥐나 메뚜기, 개구리, 작은 새를 잡아먹고 살아간다. 그래서 깊고 험한 산속보다 사람이 살고 농경지가 있으며, 시야가 뚫린 산자락의 양지 바른 구릉을 좋아한다.

결과적으로 여우의 이런 습성이 여러 가지 나쁜 모습들로 여우를 묘사하는 이유가 되었다. 왜냐하면 여우가 사는 곳이 사람들이 사는 집 주변인데다 해 질녘이면 멀리서 나타나 잡힐 듯 잡히지 않게 돌아다니니 교활한 놈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여우들은 마을 뒷산의 양지바른 언덕에서 굴을 파고 새끼를 낳아 기르는데, 이런 곳은 사람들이 주로 무덤으로 쓰는 곳과 같은 곳이다. 그러다 보니 저녁마다 무덤 주변에서 배회하는 여우를 사람들은 시체를 파먹는 무서운 요물로 생각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정작 여우의 생활을 살펴보면 무서운 동물도 아니고, 귀신과 같이 요물스러운 동물은 더 더욱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 여우의 생활사

굴을 이용하는 여우

여우는 겨울에 교미해서 3,4월경에 3마리에서 6마리의 새끼를 낳는다. 부부가 된 여우는 새끼가 커서 어미를 떠날 때까지 함께 새끼를 키우며 가족으로 지낸다. 여우는 겨울부터 봄철까지 앞으로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일 굴을 만드는데 암컷과 수컷이 함께 만든다. 굴의 길이는 5m에서 20m까지 다양하고, 다른 동물들의 침입을 빨리 알아채고 새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멀리까지 잘 보이는 지역에 만든다. 굴의 입구는 2~3개에서 많게는 10개까지 만드는데, 이런 이유는 굴 입구가 무너지거나 다른 동물이 침입했을 때 재빨리 다른 입구로 도망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만든 굴은 새끼들이 젖을 떼고 어미 곁을 떠날 때까지 사용하는데, 한쌍의 여우가 몇 년 동안 같은 굴을 이용하기도 하고, 원래의 굴은 그대로 두고 주변에 새로



《여우굴의 다양한 형태》

운 굴을 만들어서 쓰기도 한다.

새끼들의 성장

갓 태어난 여우는 눈도 뜨지 못하고 하루종일 굴 속에서 어미 젖을 빨면서 생활하는데, 이 시기에는 어미 여우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하루종일 새끼들 곁을 지킨다. 수컷은 새끼에게 젖을 먹이는 어미 여우를 위해서 혼자 먹이를 사냥하러 다니고, 잡은 먹이는 굴 속에 있는 어미 여우에게 가져다준다. 그리

고 수컷 여우는 사냥하는 시간을 빼고는 다른 동물들이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굴 주변에서 경계를 선다.

태어난지 약 한달이 지나면 새끼들은 장난도 치고 굴 밖으로 나와서 돌아다니기도 하는데, 이때도 어미 여우는 하루 종일 새끼들 주변을 맴돌면서 새끼들을 돌본다. 여우는 아주 빨리 성장해서 그해 여름이 되면 어미와 함께 먹이를 구하러 다닐 만큼 성장하고, 가을이 되면 어미 여우가 없어도 혼자 살아갈 수 있을 만큼 크다.



《생후 30일(상)과 100일(하)된 여우 새끼》

∴ 먹이를 저장하는 습성

여우는 작은 먹이를 저장하는 습성이 있다. 여우는 쥐와 같이 주로 작은 먹이를 잡아먹는데 때로는 겨울철과 같이 먹이가 부족한 시기에는 고라니나 노루의 사체를 먹기도 한다. 작은 먹이를 잡든, 큰 먹이를 잡든, 작은 먹이는 조금만 먹은 후에 근처에 숨겨둔다. 먹이를 저장할 때도 남은 먹이를 한 곳에 저장하지 않고 여러 조각으로 나눠서 저장하는데, 저장할 때도 다른 동물에게 들키지 않도록 땅을 파고 묻어서 표시가 나지 않게 해둔다. 이것은 여



《잡은 먹이를 땅속에 저장하는 여우》

우의 본능이기도 하겠지만, 다음에 먹이를 구하지 못할 때를 대비해서 준비해 두는 똑똑한 여우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 우리의 과제

여우를 포함해서 모든 동물들은 저마다의 존재 이유와 가치가 있다. 여우의 경우에도 작은 동물들을 잡아먹음으로써 생태계에서 설치류와 같은 쥐들의 개체수를 조절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여우는 더 큰 동물들의 먹이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여우가 많아진다면 여우보다 더 큰 동물들이 살아가기에도 더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다.

여우는 지난 수천년 동안 우리나라에서 살아왔던 동물이지만,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지금은 우리 곁에서 사라졌다. 현재 우리는 이렇게 사라진 여우를 복원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고 있다. 한 종류의 동물이 사라지는 것은 순식간이다. 그러나 사람들 때문에 사라진 동물을 다시 잘 살 수 있도록 하는 데에는 수십 년 이상의 시간이 걸리게 된다.

따라서 지금의 우리들과 앞으로 우리 후손들이 동화책이나 영화가 아닌 우리집 뒷산에서 여우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여우를 포함한 야생동물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